

반려동물과 갯벌체험 즐기러 태안으로 GO~

한국관광공사-대전충남지사와 협업 갯벌 산책 등 견생샷 이벤트도 마련 12일-내달까지 총 200명 대상 진행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태안군이 ‘2025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군은 4~5월 안면읍 병술만 어촌체험마을(안면읍 유흥마지길 287-20)에서 20회에 걸쳐 총 200명의 반려인 및 반려동물 200마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갯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하고 오는 4월 12일 첫 체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태안이 보유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전국 반려인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관광공사 대전충남지사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

참가자는 안면도의 아름다운 해변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갯벌 산책과 조개 잡기 등을 즐길 수 있으며 포토존을 통한 ‘견생샷’ 사진 촬영 등의 이벤트도 함께 마련된다. 양동이와 호미, 드라이기 등 장비는 현장에서 대여된다.

4월 12일을 시작으로 5월 마지막 주까지 매주 금~일요일 중 지정된 날짜 및 시간에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4월의 경우 12·13·18·20·26·27일에 참여 가능

하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6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반려인은 4월 3일부터 반려동물 여행플랫폼 ‘반려생활’ 앱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1만9000원이며 갯벌체험 포함 약 2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태안 갯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국 반려인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팀(041-670-2691)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태안=문길진 기자



반려동물 동반 갯벌 체험 프로그램 홍보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사전모집 당진시

당진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사전 신청 2차 모집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농작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실시하는 특화된 건강진단이다. 검진 대상은 당진시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51~70세(1955년~1974년 출생자)의 홀수년생 여성농업인 중 450명이다.

검진 항목은 ▲농약 중독 ▲근골격계 ▲골절 위험도 ▲혈관계 질환, ▲폐활량 검사 등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이며, 농작업 질환의 조기진단과 사후관리 예방 교육 등 전문의 상담도 진행된다.

검진 비용은 1인당 22만 원이며, 이 중 90%(19만8000원)를 시에서 지원해 대상자는 10%인 2만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여성농업인은 4월 30일까지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농업경영체 확인서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일반 국가 검진에 없는 특수질환 검진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농작업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사전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서세진 기자

서부평생교육원, 12일 도서관의 날 야외 행사

서부평생교육원은 오는 4월 12일 도서관의 날을 맞아 야외도서관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서관의 날(4월 12일)과 도서관주간(4월 12일~18일)을 기념해 열리는 것으로, 4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부평생교육원 앞 마당에서 다양한 행사를 즐길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은 앞마당에 마련된 빈백과 캠퍼의 자등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다.

비치된 책을 읽고 간단한 소감을 쓰면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즉석 미니독후감 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그림책 ‘책이 품지락품지락’을 쓴 김성범 작가의 <도깨비 작가님과 동요로 그림책 읽기> 강연이 준비되어 있으며 이와 더불어 ▲환경 전래놀이 한마당 ▲요술공연 체험 ▲북아트 체험 ▲싱잉볼 체험과 만다라 컬러링 ▲키링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이 운영될 예정이다.

서산=송낙인 기자



4월 11일까지 2주간 과수농가 꽃가루 발아를 검정 서비스를 시행한다.

과수농가 꽃가루 발아를 검정 서비스 시행 당진시농기센터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4월 11일까지 2주간 과수농가 꽃가루 발아를 검정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꽃가루 발아를 검정 서비스는 과수 만개기 이전 발아를 검사해 우량 꽃가루를 활용해 고품질 과실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과수농가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최근 과수농가에서는 개화기 저온 및 이상기후로 인해 고품질 과실 생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꽃가루 활력화 정도에 따라 인공수분용 사용 가능성을 분석해 고품질 과실 생산에 기여할 전망이다.

꽃가루 발아 검정은 작년에 채취해 사용 후 남은 꽃가루나 올해 채취한 꽃가루로 가능하며, 꽃가루 시료를 기술보급과 과수특작팀(041-360-6370~1)에 전달하면 48시간 내 분석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다.

당진=서세진 기자

충남일보 지사·지국 안내(대표국번 041)

■ 서산 663-7228 ■ 태안 673-6600

■ 당진 010-5409-6900

당진시, 경제포럼 조찬세미나 성료

당진시는 3일 제84차 경제포럼 조찬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성환 당진시장을 비롯해 관내 기업인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민선 8기 그동안 성과와 향후계획’을 주제로 오성환 시장은 강연에서 “당진시는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해 16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 인구 17만 명 돌파, 지역대 최고 고용률 달성 및 전국 시 단위 고용률 2위 등의 성과를 달성하며 전국에서 제일 발전하는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 경제발전전에 대해 “한중드론 합작 법인 설립 업무협약 체결과 드론산업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첨단 드론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으며, 충남 최초 수소도시로 선정돼 그린수소 수전해센터 및 수소암모니아 부두 조성 사업 등을 계획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계획으로 ▲도비도-난지도 해양관광복합단지 ▲수산식품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유리온실형 스마트팜 조성 ▲서해안 거점 항만 육성 ▲기업유치 기반마련 ▲탄소중립 선도도시 실현 등을 제시했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오 시장은 “당진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기업인들의 열정과 헌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당진=서세진 기자



서산시, '연간 전기요금 5000만 원 절약' 스마트 가로등 구축

서산시가 올해 관내 1482개소의 가로등을 대상으로 스마트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총사업비 5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관내 주요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에 제어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스마트 가로등 설치를 통해 연간 약 5000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한편, 연간 21만여 톤의 탄소 배출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은 서산시 가로등 모습(온석동 일원 회전교차로)

서산=송낙인 기자

모월·풍전 하수관로 정비사업 완료 '생활환경 개선'

서산시, 총 415억 원 투입 이달 본격 사용 51km 오수관로·781곳 배수 설비 등 설치

서산시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추진해 온 '서산처리구역(모월·풍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올해 3월 완료돼 4월부터 본격 사용한다고 3일 밝혔다.

총사업비 415억 원이 투입된 해당 사업은 서산하수처리구역 중 인지면 모월리, 풍전리, 애정리, 산동리, 야당리, 갈산동 일원 생활 오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추진됐

다. 사업으로 인지면 일원 일원에 51.252km의 오수관로와 781개소의 배수 설비, 맨홀 펌프장 46개소가 설치됐다.

시는 해당 사업 준공을 통한 생활오수의 안정적인 처리로 수질과 주거환경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시민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4차 서산하수관로 정비사업, 올해 착공 예정인 5차 서산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관내 하수도시설에 대한 해방기 안전 점검을 지난 3월 완료했으며,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공공하수관로 및 처리시설의 기술 진단을 통해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홍건표 상하수도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인지면 모월리, 풍전리 일원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송낙인 기자

서산시, 시민 체감형 성과 창출 박차

서산시, 올해 성과관리 기본계획 확정 부서장 책임경영·수시 평가 등 담겨

서산시가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 실현을 위한 올해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시민 체감형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지난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업무평가위원회를 열고 '2025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계획에는 ▲부서장 책임경영평가 ▲읍면동장 책임경영평가 ▲보건소·보건진료소 평가 ▲전 부서 대상 수시 평가 ▲10대 성과사업 선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고 부서별 핵심 사업 중심의 이행과제를 설정했다.

부서장 책임경영평가 등 각 평가 과정에

는 행정 전문가, 내부 직원, 업무평가위원, 시민 등이 참여해 평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시는 성과 우수 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평가 결과를 인사·보수 체계에 반영해 책임감 있는 행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성과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기적인 피드백 시스템을 운영하고,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정책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업무평가위원회에서는 심의·의결 전 새로운 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이 전달됐다.

이를 통해 서산시 업무평가위원회는 대학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행정 전문가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서산=송낙인 기자

문화유산 둘러보며 꽃강스도 즐겨요

당진시 합덕제·군자정·골정지 등 관광객 찾는 대표 봄꽃 명소로 인기

5일-6일 '면천의 봄, 또 봄' 면천 개최 재즈 공연·체험 행사 등 볼거리 다채

당진시 면천면 골정지·군자정, 합덕제 등 문화유산 주변에 봄꽃이 만개하며 봄철 대표 '꽃강스'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문화유산과 연계한 꽃길 명소는 많은 당진시에서는 ▲세계관계시설물유산 합덕제(합덕읍 성동리 395) ▲면천읍성 후원의 군자정(면천면 성상리 778) ▲면천군수 연암 박지원의 애민정신이 깃든 골정지(면천면 성상리 465) 등이 대표적인 봄꽃 명소로, 봄을 기다려온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당진=서세진 기자

태안군, 영농철 농기계 임대사업소 휴일근무

태안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에 나선다.

군은 영농철인 4월부터 6월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및 각 지소에서 휴일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농업인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이번 휴일 근무는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부족으로 인한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4월부터 본소를 비롯해 남부지소(안면·고남), 북부지소(원북·이원), 중부지소(근흥·소원) 등 4개소에서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운영된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임대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스마트 농기계 앱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태안=문길진 기자

